

나 자신이 곧 우상

어느 날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기 위해 한남수퍼에 갔었습니다. 물건을 다 사고 난 후에 시간이 조금 남아 마켓 안의 이 곳 저 곳을 살펴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 맛있는 간식거리들, 가족의 저녁 밥상을 풍성하게 해 줄 각종 반찬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곰보빵으로 채워진 제빵 코너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 길을 멈추어 세운 곳은 신선한 과일들이 즐비한 과일 코너였습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고기 먹을래? 과일 먹을래? 물어 보면 저는 언제나 과일을 선택합니다. 빨강게 익어 보기만해도 입 안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사과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과일계의 철학자입니다. 나무 위에서 떨어지며 뉴턴에게 중력을 깨우쳐준 전설의 주인공이지요. 겉은 반짝이는 빨간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하얗고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지요. 포도는 과일계의 소셜 네트워크이지요. 한 송이에 수십 명의 친구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좋아요와 공유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네요. 수박은 과일계의 여름 히어로입니다. 초록색 줄무늬 갑옷을 입고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지요. 등등의 상상을 하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들에게 나를 의미를 부여해 보곤 하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라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가슴을 뜨끔하게 하네요. 저의 인생에 먹음직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황급히 마켓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심부름을 왔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시간을 너무 지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가볍게 생각해 본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도 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저의 삶을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잊게 할만큼 먹음직해 보였을까?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끌리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옛날 아담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 주고, 무엇이 나의 삶의 안정감을 더해 줄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의 문장에 나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내가) 본즉 (나를) 먹음직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 (나를)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들... 그것들 섬기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주인공은 “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나로 완벽하게 대체해 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그것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라는 다른 신을 만들어 온 삶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영혼의 중심에 “나”를 위해 새긴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에 저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 피며 하나님께 물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모습인지를 살피곤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인되하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 보게 됩니다. 가끔 믿는 자들의 삶은 어려울 때 즐겨했던 “뽕뽕기 놀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라는 땅에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훈련을 쌓아가는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자리가 더 넓어지길 애써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대하며 삶을 주님께 드려 봅시다.

- 씨리한인교회 주보 편집팀 -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1) 2025년 표어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롬12:2)입니다.
- 2)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월로 보냅니다. 새벽예배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는 계속됩니다.
- 3) 8월 정기당회 8월 24일(주일), 오후 1:30-
- 4) 여름성경학교 (주제: 모세, 3가지 선물)
- 일시: 8월 29일(금) - 8월 30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대상: Kindergarten ~ Grade 6 어린이
- 등록비: 30불(가족 추가 인원 할인)
- 봉사자 모집: 교사와 주방 등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등록 및 문의: 604-768-5811(하선미 전도사)
- 5) 청소년 / 청년부 1일 연합 수련회
- 8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 금요성령집회는 청소년부 / 청년부와 함께 드립니다.(청소년부 / 청년부 주관)
- 6) 씨리한인교회 부속 야구팀 창단 및 선수 모집
- Team 명 : Noah Arks (코치: 이우혁 전도사)
- 현재 선수 모집 중 (8학년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주변 지인들도 초청 가능)
- 신청 및 문의: 778-683-8195(이우혁 전도사)

● 교우 동정

- 1) 결혼 김광문 청년(김용진 / 김정남 집사님 아드님)의 결혼식, 8월 17일(주일)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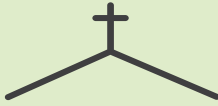
● 8월-9월 주요 행사 일정

- 1)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VBS) 8월 29일(금) - 30일(토) / 오전 10시 - 오후 3시
- 2) 청소년 / 청년부 1일 연합 수련회 8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 3) 밴쿠버 청년 kosta 2025년 9월 26일(금) - 27일(토)@씨리한인교회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협동목사** 문갑주 목사
- **원로목사 /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청소년부, 행정, 선교), 한기석 목사(젊은이/청년부, 양육)
배영광 목사(협력선교사, 예배 찬양), 하선미전도사(유치/유초등부, 마더와이즈)
이영미전도사(영아부/유아부), 김정숙 선교사(시니어 사역)
이우혁전도사(젊은이 예배 찬양 담당)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종
- **반 주** 김민경, 변순환(새벽예배)

2025. 08. 17 (Vol. 34-33)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롬 12:2)



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